<히든 챔피언 국제 컨퍼런스 축사>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 중견기업의 육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일보와 세계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뜻 깊은 행사에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아직도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위기를 넘어서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한 중소기업, 특히 중견기업 육성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올바른 방향 설정입니다.

한국도 이제 강소기업, 중견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독일의 중견기업인 '히든 챔피언'들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야할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롤 모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1990년 대 중반 이후 독일 경제의 부흥을 이끈 주역들입니다.

이들은 일반 대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도 각 분야의 글로벌 틈새시장을 공략해 세계 1~2위의 시장을 점하는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이들의 성장은 일자리로 직결돼 회사 당 평균 직원수가 2000명을 훌쩍 넘습니다.

히든 챔피언들은 단기 성과 보다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중점을 두는 경영을 합니다. 불황이 와도 가급적 직원들을 품고 근무 시간을 함께 줄이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모두 충직하게 일하는 기업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히든 챔피언들이 끊임없는 혁신으로 추격자들을 뿌리치는 비결입니다.

한국과 독일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전후 폐허와 분단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라인강'과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근면 성실한 민족성도 똑같습니다.

'무역만이 살 길이다' '근로자를 가족처럼' '하면 된다'... 이런 생각과 의지가 두 나라의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고난의 시절을 겪은 점도 비슷합니다. 독일은 1980~90년대 과잉 복지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고,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 등 그 여진에 아직 시달리고 있습니다.

2000년 대 들어 목격된 독일의 부흥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특히 이를 이끈 히든 챔피언의 성공 신화는 우리의 귀감입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을 다시 두텁게 할 모델입니다. 독일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컨퍼런스는 그런 히든 챔피언들을 제대로 배워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좋은 말씀을 위해 방한해 주신 미하엘 푹스(Michael Fuchs) 독일 기독민주당 부총재는 기업인 출신으로 히든 챔

피언 육성 정책을 적극 입안해 온 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